



'신라정신新羅情神'의 특징 거론에 대한 성찰

A Reflec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 of Silla

저자 (Authors)	최재목, 김태연 Choi, Jae-mok, Kim, Tae-Yeon
출처 (Source)	국학연구 20 , 2012.6, 179-202 (24 pages) KOREAN STUDIES 20 , 2012.6, 179-202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국학진흥원 Korea Studies Adancement Cente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26612
APA Style	최재목, 김태연 (2012). '신라정신新羅情神'의 특징 거론에 대한 성찰. 국학연구, 20, 179-2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4 10: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정신新羅情神’의 특징 거론에 대한 성찰*

최재목** · 김태연***

1. 서언
2. 신라정신의 특징
3. ‘신라신라정신’ 거론에 대한 객관적 성찰
4. 결어

요약문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신라정신新羅情神’이라 거론되는 특징들을 성찰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찰’이란 종래의 논의를 재음미해보고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상북도를 위시한 경주 등지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을 경우 대개 ‘화랑花郎’ 문제를 포함한 ‘신라정신’ 운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신라에 대한 주목과 재음미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현재의 일만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기로 이어지는, 이른 바 ‘북-

* 이 논문은 <영남대학교 연구조교활용과제(210-A-251-003)>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崔在穆, 영남대학교

*** 金泰然, 영남대학교 대학원

고구려정신'에 대항하는 '남-신라정신'의 확립과 계승이라는 정치사적인 측면을 갖는다.

천년 왕국이었던 신라는 문물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한반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또 천년 전 통일신라는 신라방, 해상무역네트워크, 실크로드를 통해 아랍권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장신구를 수입하였으며, 철기를 수출하였다는 등의 사실史實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특성은, 포용성·개방성·국제성·자유성·다양성·융합성·조화성이 공존한 사회였다고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사적인 의미의 해석도 관여해 있지만, 적어도 신라정신을 현실의 맥락에서 다시 인식, 수용하고자 한다면, 취사선택할 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날이 퇴락하는 듯한 현재 경주의 모습처럼 '신라정신' 운운의 논의도 실효성 없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회상'에 불과할 것이다.

더욱이 '신라정신' 운운이 지차체의 근시안적인 사업 차원이나 정치권의 알팍한 지역색 이데올로기 확보를 위한 논리전개를 넘어서서, 통일신라의 해외 무역로와 실크로드의 문화, 정보 네트워크 등을 어떤 방식으로 깊이 있고도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다시 성찰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냉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신라, 신라정신, 화랑, 풍류정신, 화백제도, 국제성, 개방성

1. 서언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신라정신新羅情神'이라 거론되는 특징들을 성찰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찰'이란 종래의 논의를 재음미해보고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상북도나 이에 속한 경주 등지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논하는 경우 대개 '화랑花郎'을 포함한 '신라정신' 운운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 이렇게 신라에 대한 주목과 재음미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현재의 일만은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서 해방 이후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북-고구려정신’에 대항하는 ‘남-신라정신’의 확립과 계승이라는 정치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²⁾

예컨대, 이러한 신라와 신라정신에 주목했던 대표적 인물로는 범부凡父 김정 설金鼎高(1897~1966)을 들 수 있다.³⁾ 그는 신라 및 경주 문화의 특수성 규명의 방법에 주목하고, 『風流精神과 新羅文化－風流道論緒言』에서 동東=동방東方 르네상스의 모델로서 신라-경주 문화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논한다.⁴⁾ 이외에도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신라정신에 대해 다양한 조명이 이루어졌다.⁵⁾

삼국시대의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중심을 벗어난 동남부에

- 1)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상북도경주시가 지역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신라-화랑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그 좋은 예이다. 예컨대, 경상북도, 『경북정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경상북도, 2010.12)와 경상북도 미래전략 기획단, 『경북의 魂 -화랑선바호 국새마을 경북 ‘4대 정신’ 이야기하다』(경상북도)를 참조.
- 2) 이에 대해서는 김석근, 『신라정신천명과 그 정치적 함의』, 『범부김정설 연구논문자료집』(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0); 최재목, 『韓國における「武の精神」·「武士道」の誕生』, 『陽明學』22(한국양명학회, 2009); 황종현 역음, 『신라의 발견』(서울: 동국대출판부, 2008)을 참조.
- 3) 김정설에 의하면, 무속은 샤머니즘계의 信仰流俗으로서 신라의 風流道의 중심사상이 바로 이것이고, 또 이 풍류도의 연원인 단군의 神道設敎도 이러한 巫俗과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신도설고는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일관한 것으로 고구려백제가 모두 이것으로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으나, 신라에 이르러 이 정신이 더욱 발전하고 세련되고 조직화되어서 풍류도를 형성, ‘신라 일대의 찬란한 문화를 釀出하고 傑持한 인재를 배양하고 또 삼국통일의 기운을 촉진’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은 외래문화의 형태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정신은 사라진 채 조선시대 말기까지 퇴폐한 여운과 사이비한 형태만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즈음에 있었던 수운의 출현은 가히 ‘역사적 大降靈’이며 동시에 ‘神道盛時精神의 기적적 부활’로 범부에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범부는 이러한 출현을 ‘國風의 재생’, ‘사태의 驚異’라 칭하며 ‘역사적 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재목, 『범부 김정설의 崔濟學論에 보이는 동학 이해의 특징』, 『동학학보』 21(동학학회, 2011), 3쪽 참조).
- 4) 그의 신라정신의 연원에 대한 논의는 김정설, 『風流精神과 新羅文化－風流道論緒言』, 『韓國思想』 3(韓國思想講座編輯委員會編, 1960) 및 김정설, 『凡父金鼎高短篇選』, 최재목·정다운 편(서울: 선인출판사, 2009)을 참조.
- 5) 이외에 신라정신과 관련한 연구로는 박남수, 『신라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 『新羅문화』 30(2007)을 비롯해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일조각, 2005); 최장일,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신서원, 2009); 권덕영, 『화랑 관창의 추억』, 『新羅史學報』 24(2012); 정경환, 『통일신라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4-2(한국민족사상학회, 2010) 등이 있다.

위치해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신라는 위치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무역 및 교류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신라는 한반도를 통합하여 삼국 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여 한국사의 큰 획을 그었다. 통일 이후 신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체제 제도를 재정비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의적 정치운영체제인 화백제도와 소경제도를 운영하고, 인도 구법승과 당유학생 파견과 같은 학문과 사상의 유입을 통해 외래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국제적으로도 해상실크로드 교역을 통해 서역 및 중앙아시아(비잔틴-이슬람-당-신라)를 잇는 교점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언어와 풍속 등의 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활발한 문화수용과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의 정신문화의 기반에는 정치·제도측면에서의 포용성·개방성·국제성·창조성을 바탕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화백제도와 소경제도, 당나라 유학생과 화랑제도가 있다. 이는 신라만의 국제성과 개방성이 돋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상·문화·예술측면에서는 자유성·다양성·융합성·조화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풍요로움·넉넉함을 추구하였다. ‘멋과 풍류’를 즐기고 존중하는 정신을 기반으로 화랑과도 결부되는 풍류정신(風流精神)과 원효의 원융정신(圓融精神)⁶⁾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정신들은 삼국을

6) 고려시대 의천(義天, 1055~1101)은 원효를 ‘百家의 서로 다른 논쟁의 실마리를 화합시킨 인물’이라고 하였다(『대각국사문집』 16, 『祭芬皇寺曉聖文』(『한국불교전서』 권4), p.555a). “唯我海東菩薩 融明性相 隱括古今 和百家異諍之端 得一代之公之論.” 그리고 숙종 6년(1101)에는 원효에게 和諍國師라는 시호가 내려지는 등 확실히 원효사상의 핵심은 화쟁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적 특징은 해방 이후 조명가(기영·박종홍 등)에 의하여 신라의 총화정신·원효의 통합불교정신 등으로 부각되었으며, 원효의 사상과 신라정신을 결부시켜 재조명할 것을 거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통일이후 신라의 문화와 정통을 이끄는 저변과 중심축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신라정신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신라정신 거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약간의 성찰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신라정신의 특징

일반적으로 신라는 아래와 같이 정치·제도와 사상·문화·예술적 측면에서 포용성·개방성·국제성·자유성·다양성·융합성·조화성과 같이 다양한 특징을 지닌 국가였다고 기술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치·제도적 측면

가. 포용성과 개방성

(1) 화백제도와白制度

화백제도는 진골眞骨귀족 출신으로 구성된 신라의 합의체 회의기구로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귀족과 왕권 사이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여기서 화백의 '화和'라는 것은 '화합한다'는 뜻이고, '백白'은 광명光明의 색 즉 빛의 삼요소인 '녹색·빨강·파랑이 통일된 색'을 의미한다.⁷⁾ 따라서 '화백'이

7) 참고로 신라는 특히 '흰색'을 좋아했던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일본 고시가집인 『만요슈[萬葉集]』에는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奈良]의 사호산[佐保山] 기슭의 어느 精舍에서 30여년 교화를 하다 세이부천황[聖武天皇] 덴표[天平] 7년(신라 聖德王 34년(735)) 세상을 떠난 비구니 승려 理願에게 오호토모노 사카노우에노 이라즈메[大伴坂上郎女]가 輓詞를 지었는데,

란 화합하여 아뢰다(和白)는 뜻에서 사람이 천지와 하나 되어 화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만장일치를 지향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각자 사사로 온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회의에 임하여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국사國事를 결정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정치적 협의 체제는 신라인들로 하여금 반대의견에 대한 배타성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포용성을 길러나가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러한 자세는 고구려와 백제 쪽에서 피난처를 구해오는 다른 부족민들을 최대한 마찰없이 받아들일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⁸⁾ 나아가 이러한 화백회의의 정신은 후에 고려시대의 도당회의都堂會議인 도병마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9주5소경제도九州五小京制度

소경제도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국원소경國原小京(지금의 충주)을 비롯하여 문무왕 때의 북원소경北原小京(원주)-금관소경金官小京(김해)과 신문왕 때의 서원소경西原小京(청주)-남원소경南原小京(남원) 그리고 경덕왕 때 국원소경이 중원소경中原小京으로 개칭됨에 따라 5소경으로 완성된 것이다. 5소경은 그 명칭이나 위치로 보아 중·동·서·남·북의 방향에 맞추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인 경주가 동쪽에 치우쳐있는 결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방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⁹⁾ 즉 새로 편입된 피정복 지역민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한편,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충(특수 행정구역, 이른바 광역시) 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조치였다. 9주州가 옛 고구려·백제·신라지역에 각각 3개

그 가운데 ‘흰 빛 신라의 나라에서...(중략)...건너 오시어’라고 읊고 있다. 金煥泰, 「新羅의 女性出家와 尼僧職 고찰 - 都維那娘 阿尼를 중심으로」, 『명성스님고회기념 佛敎學論文集』 (雲門僧伽大學出版部, 2000), 52쪽 참조.

8) 김충열, 『한국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9), 26쪽.

9)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서울: 고즈윈, 2005), 45쪽.

의 주를 배정함으로써 삼국과 피정복민들을 포용하는 포용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설치하였는데, 소경의 관할 구역은 작았지만 그 장관인 사대등(什大等(또는 什臣)의 지위가 주의 장관인 도독(都督과 비슷할 정도로 소경은 중시되었다. 그 결과 소경은 신라에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또한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삼한을 일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옛 백제와 고구려 주민들을 포용하는 힘을 기울였다.¹⁰⁾ 이는 신라가 지역과 민족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포용성있는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3) 구법기행(求法紀行)을 떠난 승려들

재당(在唐) 신라인들은 주로 당의 동부 연안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신라와 당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당 전역에는 신라인 유학생과 구법승(求法僧) 등이 늘어나고 있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며 중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은 상당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초기에는 주로 불사리(佛舍利)와 경전(經典) 및 각종 불구(佛具) 등을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선진 불교지식을 전래하였다. 그 이후 중하대(中下代)에 이르기까지 신라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론적 깊이를 구축하는 등 신라불교를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면 의상(義湘(625~702)은 당에서 화엄종(華嚴宗)의 교리를 배우고 『화엄 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짓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을 열었고¹¹⁾, 원측(圓測

10)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서울: 휴머니스트, 2003), 27쪽.

11) 의상은 중국의 화엄종사인 長安 終南山의 智嚴(602~668)에게서 8년간 수학하였다. 귀국 후에 신라의 화엄을 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에서도 해동화엄조사로서 화엄계 승려에

(613~696)의 불교 이론은 특히 당의 유식학唯識學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4년간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와 주변 나라를 여행한 구법기행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편찬한 혜초慧超(704~787)는 현재까지도 불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당에 파견된 유학생들

신라는 당의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규모로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신라의 관비유학생官費留學生 파견은 기록상 선덕왕 9년(640)에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왕이 자제子弟를 당의 국학에 입학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소수의 왕족이 그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신라의 입당유학入唐留學은 통일이후 신라와 당간의 해로海路가 트이고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더욱 성행하게 되었는데, 많을 때에는 한 번에 입당유학생이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도당유학생으로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 ‘海雲’이란 號도 있음)과 김운경金雲卿(?~?)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후 879년 황소黃巢의 난 때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초하여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그리고 김운경은 신라의 문인으로 숙위학생으로는 처음으로 821년 당나라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이러한 신라 유학생들의 진취적인 사고는 문물교류 뿐 아니라 사상·학문의 폭넓은 교류를 가능케 했다.

의해 존속되었다. 이는 특히 신라의 원효와 의상을 주인공으로 한 일본의 국보인 묘에[明惠, 1173~1232]의 『華嚴緣起』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묘에는 의상의 설화와 관련하여 善妙寺를 세우고 『高山寺緣起』를 통해 “善妙神新羅國女神也 有華嚴擁護之誓 故勸請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金任仲, 『日本における元曉義湘傳: 『華嚴緣起』繪卷を中心に』, 『文芸研究』

106(明治大学文芸研究会, 2009)을 참조 바람.

(5) 진취적 청소년 육성책- 화랑花郎제도

신라의 화랑도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과 무예를 연마하는 심신을 수련하였다. 『삼국사기=國史記』에서는 화랑도의 설치 이유를 ‘처음에 임금과 신하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 근심하였다’(初君臣病無以知人)라고 함으로써 국가의 인재양성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²⁾

화랑의 지도자는 국선國仙·화주花主·원화源花 등으로 불렸다. 576년 이후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총지도자에 국선國仙을 두었으며, 그 밑에 화랑이 있어 각각 문호門戶를 맡았다. 화랑도의 총지도자인 국선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1명이었으며, 각 문호의 낭도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었다. 당시 화랑도는 인재양성 기관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수양 단체로서 문벌과 학식이 있고 외모가 단정한 사람으로 화랑을 조직하였다. 심신의 단련과 사회 선도를 교육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는 풍류도라는 신라 고유의 가르침이 있어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수련하여, 자유스러움과 호방함을 보여주는 선풍仙風과 유교·불교·도교의 3교를 포괄하여 풍류도가 화랑의 기풍과 정신세계의 한 바탕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화랑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치국治國의 근본이라 생각해 온 신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유사상은 물론 불교나 유교의 이념까지 원용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¹³⁾ 이러한 화랑도는 삼국통일 이후 쇠퇴하였으나, 그 정신은 한민족 고유의 전통과 이념으로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면면히 계승되어 독립과 애국정신의 상징으로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안경식, 「화랑도교육사상과철학」, 『新羅學研究』 8(경주: 위덕대학교신라학연구소, 2004), 7쪽.

13) 鄭雲龍, 「新羅花郎制成立과人材選拔」,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9(신라문화선양회, 1999), 32~33쪽.

나. 국제성

(1) 동북아 해상무역 네트워크

주지하는 대로 장보고張保臯(?~841)는 탁월한 국제적 식견과 적극적인 대외 지향적 사고를 갖고 해상경영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신라 해상무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미 1200여 년 전 국제주의적 시야와 철학을 가져 동아시아 및 세계와 호흡하고 있었다.

장보고는 9세기 초에 당 나라로 건너가 중국의 산둥반도와 회수淮水 유역에 이르는 영역을 근거지로 수많은 신라의 상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뛰어난 무재武才로 당의 무령군 소장의 지위까지 올라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워 신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과 일본을 넘나들며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포괄하는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해상 경영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민간무역에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의 국제무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당시의 당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은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교역을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의 정보도 빠르게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¹⁴⁾,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 해상무역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당시 신라(청해진)를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랍과 중동지역까지 연결되었다.

이처럼 신라는 8~9세기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무역 뿐 아니라 동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2) 실크로드와 문화교류의 거점

신라의 문화는 타국과의 적극적인 접촉과 교류 속에서 꽃피었다. 그 중 실크

14) 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 394(1988).

로드는 상업면과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길을 통하여 중국에서 비단·종이·거울 등이 서방으로 수출되었고, 아랍 대상들은 사금이나 은보석·유리 등을 낙타에 싣고 멀리 아시아인 중국까지 비단을 사러 갔다. 또한 음악과 무용·요술·곡예 등 서아시아의 산물과 풍속이 중국에 전해진 곳으로서, 불교·이슬람교·기독교·조로아스트교 등의 종교의 교류도 이루어졌던 거대한 동서문화교류의 교통로였던 것이다. 이처럼 비잔틴(콘스탄티노플)–이슬람(바그다드)–당(장안)–신라(경주의 문화교류로 물자와 제품만이 아닌 기술, 무기와 함께 예술과 정보, 종교와 사상이 함께 퍼져 나갔다. 또 화려한 공예품과 보석류·장신구·카펫·옥·에머랄드·유리·향신료·간접 무역과 직거래를 통해 신라까지 전해졌다. 이러한 화려하고 진귀한 수입품들이 신라 귀족사회의 고급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3) 신라방新羅坊

일본 헤이안[平安] 시기의 승려인 엔닌[円仁, 794~864]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¹⁶⁾에 소개된 신라방은 통일신라 당시 신라인이 산둥반도[唐]에 구성한 공동체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엔닌은 당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재당 신라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구법순례를 마쳤으며, 그 내용을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상세하게 기

-
- 15)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서울: 사계절, 2001)와 이희수, 『이희수 교수의 세계문화기행 - 낯선 문화 속의 익숙한 삶』(서울: 일빛, 2009) 참조.
- 16)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엔닌이 承和 5년(838) 6월 13일 遣唐使船을 타고 하카타만[博多灣, 현재의 큐슈 후쿠오카]을 출발하여, 大中 元年(847) 9월 17일에 다시 하카타의 能舉嶋에 도착한 뒤 鴻臚館에 안치되기까지의 약 10년간의 재당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承和 5년(838) 6월 13일에서 847년 12월 14일 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엔닌의 당에서의 신라인들의 생활상, 외교, 풍습, 전례 등의 기록을 기초로 재당신라인들의 역할에 대해 일본에서도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음과 같은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内藤雋輔, 「唐代中國にお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岡山史學』1(岡山大, 1995); 坂上早魚, 「九世紀の日本交通と新羅人-円仁の『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に」, 『文明のクロスロード』28(1988); 堀敏一, 「在唐新羅人の活動と日唐交流」, 『東アジアの中の古代日本』(研究出版, 1988).

록하고 있다. 재당 신라인들은 회하淮河하류 일대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재당 신라인 촌락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산둥반도의 등주 등에는 장보고에 의해 설립된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재당신라인사회를 형성하여, 당 내부활동 뿐 아니라 신라본국 및 일본까지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교역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¹⁷⁾

당시 당나라는 당에 체류하는 이민족끼리 지위를 보호해 주는 율령을 제정하는 등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에 신라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교역, 외교를 위한 신라방·신라소·신라원·신라관 등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라방은 아랍상인들의 거주지와 근접해 있어 문물교류가 가능하였다. 이것은 신라인들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교역의 교점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최치원의 코스모폴리탄 정신

경주 출신인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장안에 유학을 했고 후에는 강소성 양주의 관리로 현위縣尉직까지 올랐다. 『계원필경桂茆筆耕』이라는 명작을 남겼으며, 신라로 돌아온 후에는 당나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라의 국제성은 조기 유학생이었던 최치원에게서 잘 드러난다. 즉 최치원은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의 「진감선사대공탑비문」(=「眞鑑禪師大空靈塔碑」)을 쓰면서 그 앞머리에서 “대저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고(夫道不遠人), 사람에게(이 나라 저 나라라 하듯) 다른 나라(타국)란 없다(人無異國).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所以東人小子) 유자-유교학자도 되고 불자-불교학자도 된다(爲儒爲釋). 기필코 서쪽으로 대양을 건너가서(必也西溟大洋), 이중통역을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重譯從學).”라고 한 데 잘 드러나 있다.

17) 이유진, 「엔닌의 입당구법과 재당신라인사회의 정보력」, 『동국사학』 46(동국대학교사학회, 2009), 100쪽.

2. 문화·예술적 측면

1) 자유성과 융합성

가. 풍류風流

풍류도는 최치원이 '나라의 현묘한 도'로 전하고, 민족문화의 정신으로 이어진 사상이다. 특히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유불도儒佛道 3교를 포괄한 현묘지도玄妙之道라 하였으며, 외래 종교인 삼교를 포괄하여 증생을 교화해 온 고유의 사상이라고 했다. 즉,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포괄하며, 사람을 교화하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풍류도의 세계관에 따라 상상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면서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또한 풍류에서는 신라의 포용과 조화의 정신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적 맥락은 신라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삼국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2) 불교공인

신라의 불교 공인은 이차돈의 순교 이후 공인되었다.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150여 년 늦은 법흥왕(528년) 때였으며, 당시의 신앙의 형태였고 공인되지 못하였다. 이후, 진흥왕은 사찰을 창건하고 불교의 전파와 활성화를 위해 승려가 되는 것을 장려하였다. 또 유학승을 해외에 파견하여 경론을 받아들이고, 팔관회八關會와 같은 법회法會를 열어 불교에 대한 국민의 신앙을 굳건히 하였다.

이렇게 신라에 자리잡은 불교는 신라불교의 상징인 원효元曉(617~686)의 '한 마음의 포용력=일심화쟁一心和諍과 넉넉히 큰마음으로 서로 통합=원융회통圓融會通'으로 대표된다.¹⁸⁾ 또한 불교가 유입되자 불교를 풍류도에 융합하여

18) 鎌田茂雄는 원효의 사상은 和諍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融會 즉 和會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鎌田茂雄, 「七世紀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元曉の位置」, 『元曉聖師의 哲學世界』(大韓傳統佛敎研究院, 1989), 671쪽. “政治的社會的に當時、和諍の思想を強調すること

‘풍류만다라’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이 세계관에 따라 화랑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윤리와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산천제에서부터 국가의식인 연등회나 팔관회에 이르기까지 종교와 삶, 신화와 현실을 하나로 아우르는 삶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각 부족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라의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삼국통일의 근본정신이 되었으며, 국민들을 민심을 얻어 왕권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2) 다양성과 조화성

가. 다양한 문화예술

신라의 외래문화 수용은 신라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신라는 외래문화 교류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은 신라금新羅琴(가야금, 시라기고도)¹⁹⁾을 소장하고 있다. 둘째, 최치원의 시 『향약잡영오수향樂雜詠五首』에 소개된 가歌·무舞 가운데 4개가 서역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신라에 전래되었다. 셋째, 신라의 음악은

が國家統一に必要であつたかも知れないが、元曉の目ざしたのは和諷による佛國十の建設にあつたのではないか。元曉の和諷の思想は彼の著書にさまざまな形であらわれている。たとえば『大慧度經宗要』では實相と無相とが『涅槃經宗要』では涅槃の體と用とが『金剛三昧經論』では佛と衆生との同一本覺が『起信論疏』では一心の本源が、さらに『起信論別記』では眞俗平等が説かれているのである。”

19) 일본의 나라[奈良]의 東大寺 안에는 正倉院이라는 창고가 있다. 이 동대사 정창원은 王后 光明이 남편 聖武天皇(724~749)이 죽은 뒤, 49재 명복을 빌기 위해 평소 아끼던 600여 종의 물품을 동대사에 헌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이 때 헌납한 물품들을 기록한 목록서인 獻物帳에는 新羅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56년 6월 21일자에 “金鏤新羅琴一張 枕尾 染木 綠地畫月形納臘袋綠裏 金鏤新羅琴一張 枕尾 桐木 緋地畫月形納紫地錦袋緋裏.”라고 기재되어 있다. 林謙三, 『正倉院樂器の研究』(風問書房, 1964), p.346.

수나라에서 잡악雜樂으로 자리잡았다. 넷째, 신라 여악女樂(여성 음악인)을 당나라에 파견하고 당악을 수용하였다. 다섯째, 승려들의 왕래와 함께 불교예술문화가 유입되었다.(梵唄)

나. 신라의 삼현三絃·삼죽三竹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삼국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였다. 고구려 악기와 백제 악기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음악문화를 형성하였고, 남북국시대의 음악사를 한반도에서 주도적으로 전개시켰다. 통일 신라는 삼국시대 신라 향악의 터전 위에 백제와 고구려의 음악문화를 수용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음악문화로 발전시켰다²⁰⁾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의 대표적인 악기로 삼현(가야금·거문고·향비파) 삼죽(대금·중금·소금)이 있다. 그 중 가야금은 신라를 대표하는 악기로 원래는 가야국의 악기였다. 『삼국사기』 「악지」에 의하면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인 쟁을 본떠 제작하였다’고 한다. 가야의 악사 우륵은 가야국에 전란이 일어나자 신라로 망명하였는데 이로써 가야금은 신라에 유입된다. 또 거문고는 고구려시대 왕산악이 만들었으며, 향비파는 서역에서 고구려를 통해 신라에 자리잡게 된 악기이다. 또 삼죽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죽은 신라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 악기들은 모두 신라를 대표하는 악기로 향악鄉樂의 연주에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이 삼현삼죽은 신라에서 수용하여 신라의 정신을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 등 여러 국가에서 수용한 것은 당시 소멸위기에 있던 악기들이 후대에 전승되는 큰 역할을 하였다.

20)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서울: 민속원, 2007), 81쪽.

3. ‘신라신라정신’ 거론에 대한 객관적 성찰

신라는 675년 삼국통일을 실현하여,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조화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나라이다. 통일신라는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당나라와 일본과 상대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이루어 왔다. 대내적으로는 통일된 정치체제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비록 외세인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불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삼국통일의 한계점을 보이지만, 이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자주성을 지켜냈으며, 이후로도 고려와 조선을 이어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신라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화백제도와 소경제도를 통해 신라인의 포용성을 길러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화백제도는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신라의 통일 이후에는 화백제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왕권이 강화되어 실제로 화백제도의 목적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소경제도는 중앙 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중앙의 귀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점들도 신라가 갖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신라시대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는 많은 인재를 배출해 삼국통일과 골품제骨品制 사회에서 여러 계층과의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여 신라의 발전을 둔화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신라는 당일본과의 문물교류를 통해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신라가 변성한 요인으로 이러한 교류를 통해 외래문화를 적극 수용해 자기 것으로 융합시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라를 이끌어 가는 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화가 귀족적이고 화려해 일반백성들은 향유하지 못하였다.

신라는 불교사회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불교의 불

국토사상과 호국정신과 풍류정신은 화랑도에 영향을 주었고, 삼국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신라를 떠올릴 경우 많은 장점들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현대적 정치의 문맥에서 거론된 '신라정신'을 떠올린다면 무조건 '신라정신'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¹⁾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와 영화 '신라의 달밤' 등은 모두 신라-경주의 발견과 재탄생을 의미하였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신라-경주는 근-현대의 한국적 맥락에서 또 다른 '시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떠한 하나의 '지역'은 마치 하회나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듯이, 지리적인 좁은 영역을 넘어서서 국제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보라는 근시안에 사로잡혀 넓고 큰 신라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종래 이처럼 수운과 범부가 이룩한, 지역과 공간을 넘어선 너른 차원의 논의들을 애써 다시 좁은 실제의 시공간(예컨대 경상북도-경주하는 시공간)으로 지극히 축소된 형태로 환원시키고, 나아가서 성급하게 특정 지역(경북-경주, 나아가서는 남한)의 색깔로 '고정화·실체화·정태화·도식화'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는 많은 성찰과 경계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의 화랑도, 풍류와 같은 민족적 문화자산들이 적극적으로 평가된 것은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주의화에 따른 내선일체-한일병합-지정학적 이용성 등에 의한 것이었다.²²⁾ 예컨대, '화랑도'를 무사도로 연결(시라카미 주키

21) 아래 부분은 최재목, 「東의 誕生 -水雲 崔濟愚의 '東學'과 凡父 金鼎高의 '東方學」, 『陽明學』 26(한국양명학회, 2010)을 참조하였다.

22)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경주지역의 고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라의 유적에서 자신들의 선조의 흔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써 당시의 식민지배도 일본 고대의 역사를 되찾는 것임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총독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고적조사는 평양 일대의 낙랑유적과 임나일본부설을 증빙할

치[白神壽吉]의 「內鮮一體 新羅武士道」)하거나 평가하여, 청소년(소녀), 학생들을 카미가제 특공대[神風特攻隊] 출전, 여학생들의 정신대挺身隊 동원, 황국 식민화에 대한 충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의 총력전 기지구축과 연결되어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신라-경주의 발견’이다. 이에 대하여 민족주의자들은 기존의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뒤집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대응한다. 이러한 일제 식민주의자들의 ‘신라-경주의 발견’이 해방 이후 건국시기에 국가재건의 버전으로 변환되어 이승만정권기와 박정희기의 ‘고구려-북쪽-공산주의’ 대 ‘신라-남쪽(경상도)-민주주의’ 정권 만들기의 민족주의적인 노력 속에서 추진된 것은 기억해 볼 일이다.²³⁾

경상북도, 나아가서 경주신라가 동아시아 혹은 세계와 호흡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최재우나 김정설이 이야기 한 신라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동학’, ‘동방학’을 새로운 방향에서 조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신라-경주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라-경주를 한국이라는 일국주의一國主義의 폐쇄구역으로부터 해체하는 역할을 해준다. 신라는 중국에 ‘신라방新羅坊’을, 그리고 일본에는 ‘신라군新羅郡’이라는 공간을 만들 정도로 국제적인 활동을 보여준 나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라는 아랍세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이 최근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이희근은 『우리 안의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이란 책에서 신라가 많은 이민족(이방인들, 예컨대 이슬람 등)과 함께한 시공간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⁴⁾

수 있는 신라가야지역 발굴에 집중되었다. 이선복, 「고고학개론」(이론과 실천, 1988), 228쪽. 이는 일제가 식민지배 정당화의 근거로 삼은 일선동조를 유적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작업으로, 그 결과는 발굴품의 해석이나 역사서에도 반영되었다. 참고로 황종연 엮음, 『신라의 발견』(동국대 출판부, 2008)는 일제시대에 재창조된 신라의 역사적 실체와 의미에 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유용하다.

23) 이에 대해서는 최재목, 「韓國における「武の精神」·「武士道」の誕生, 『陽明學』22(한국양명학회, 2009)를 참조.

24) 이희근, 『우리 안의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서울: 너머북스, 2009).

일찍이 이희수는 『세계문화기행』²⁵⁾이란 책에서, 아랍인 이븐 쿠르다드비²⁶⁾(Ibn Khurdadhibah, 820~912)가 845년에 쓴 이슬람 기행문인 『도로와 왕국 총람』의 “중국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산이 많고 여러 왕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는 금이 많이 생산되며 기후와 환경이 좋아 많은 이슬람교도가 정착했다. 주요산물로는 금, 인삼, 옷감, 안장, 토기, 검 등이 있다.”(밑줄 인용자)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희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 지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지도의 존재는 ‘아랍세계와 고대 한국이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²⁷⁾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희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시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후푸프라는 마을에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다는 제법 신뢰할 만한 제보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후푸프의 알 윤(Al-Yun)이란 마을에서 칼릴 이브라힘이라는, 어머니가 한국계(약 1,200년 전에 바레인을 거쳐 이곳에 정착했다고 함)라는 남자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윤尹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 (이슬람의 술탄에게서) 그 마을을 포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윤 장군의 명예를 기리는 뜻으로 그 마을을 알 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마을에는 여섯 가구의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실제로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를 즐겨 먹고, 한국식 한방 처방이 남아 있다고 한다.²⁸⁾

요시미즈 츠네오[由水常雄]는 『로마문화 왕국, 신라: 방대한 유물과 사료로 파헤친 신라문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방대한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신

25) 이희수, 『이희수교수의 세계문화기행: 낯선 문화 속의 익숙한 삶』, (서울: 일빛, 2009), 54쪽.

26) 다른 곳에서는 ‘이븐 쿠르다지바’로도 읽음(유홍준, 「유홍준의 국보순례(34) -신라의 황금, 『조선일보』 (2009.11.2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8/2009111801896.html, 검색일자: 2010.2.20)

27) 요시미즈 츠네오[由水常雄], 『로마문화 왕국 신라 -방대한 유물과 사료로 파헤친 신라문화의 비밀』, 오근영 옮김(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2), 57쪽.

28) 위의 책, 같은 곳. 이 내용은 이희수, 『이희수교수의 세계문화기행: 낯선 문화 속의 익숙한 삶』(서울: 일빛, 2009), 131~132쪽을 참조한 것임.

라가 중국과 교류하기 전에는 로마문화 왕국과 교류한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신라의 경주가 중국과 교류하기 전까지 적어도 로마문화 제국과의 교류국이었던 말은, 곧 신라와 경주의 문화 그리고 그 정신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일 것이다.

4. 결어

천년 왕국이었던 신라는 문물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한반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또 천년 전 통일신라는 신라방, 해상무역네트워크, 실크로드를 통해 아랍권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장신구를 수입하였으며, 철기를 수출하였다는 등의 사실史實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특성은, 포용성·개방성·국제성·자유성·다양성·융합성·조화성이 공존한 사회였다고 평가되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사적인 의미의 해석도 관여해 있지만, 적어도 신라정신을 현실의 맥락에서 다시 인식, 수용하고자 한다면, 취사선택할 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날이 퇴락하는 듯한 현재 경주의 모습처럼 ‘신라정신’ 운운의 논의도 실효성 없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회상’에 불과할 것이다.

더욱이 ‘신라정신’ 운운이 지차체의 근시안적인 사업 차원이나 정치권의 알파한 지역색 이데올로기 확보를 위한 논리전개를 넘어서서, 통일신라의 해외 무역로와 실크로드의 문화, 정보 네트워크 등을 어떤 방식으로 깊이 있고도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다시 성찰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 04. 03 : 논문투고 •2012. 06. 01~06. 11 : 심사
•2012. 06. 15 : 수정완료 후 제출 •2012. 06. 18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天道教經典』

鎌田茂雄, 「七世紀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元曉の位置」, 『元曉聖師의哲學世界』
(大韓傳統佛教研究院, 1989)

경상북도, 『경북정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경상북도, 2010.12)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경북의魂－화랑·선비·호국·새마을경북‘4대정신’
을 이야기하다』(경상북도)

鷄林社編輯部 編, 『花郎道』(서울: 鷄林社, 1949)

金凡父, 『風流精神』(初版)(서울: 정음사, 1986)

金性奉, 『花郎傳記』(晋州: 晋州師範學校, 1946)

김석근, 「신라정신 천명과 그 정치적 함의」, 『범부김정설 연구논문자료집』(서
울: 도서출판 선인, 2010)

김정설, 『凡父金鼎高短篇選』, 최재목·정다운 편(서울: 선인출판사, 2009)

_____, 『凡父遺稿: 政治哲學特講』(대구: 이문출판사, 1986)

_____, 『凡父遺稿』, 凡父遺稿刊行會 編(대구: 이문출판사, 1986)

_____, 『風流精神』, 秦教勳 주해(경산: 영남대 출판부, 2009)

김충열, 『한국유학사』(서울: 예문서원, 1998)

內藤雋輔, 「唐代中國にお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岡山史學』1(岡山大, 1955)

林謙三, 『正倉院樂器の研究』(風間書房, 1964)

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394 (1988)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서울: 민속원, 2007)

안경식, 「화랑도 교육사상과 철학」, 『新羅學研究』8(경주: 위덕대학교신라학연
구소, 2004)

요시미즈 츠네오[由水常雄], 『로마문화 왕국, 신라: 방대한 유물과 사료로 파헤
친 신라문화의 비밀』, 오근영 옮김(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2)

- 유홍준, 「유홍준의 국보순례(34)-신라의 황금」, 『조선일보』 (2009.1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8/2009111801896.html(검색일자: 2010.2.20))
- 李瑄根, 『花郎道研究』 (서울: 東國文化史, 1949)
- 이선복, 『고고학개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88)
- 이유진, 「엔니의 입당구법과 재당신라인사회의 정보력」, 『동국사학』 46(동국대학교 사학회, 2009)
-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서울: 고즈윈, 2005)
- 이희수, 『이희수교수의 세계문화기행: 낯선 문화 속의 익숙한 삶』 (서울: 일빛,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서울: 휴머니스트, 2003)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1)
- 鄭雲龍, 「新羅花郎制成立과人材選拔」,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신라문화선양회, 1998)
- 최재목, 「東의誕生-水雲崔濟愚의‘東學’과凡父金鼎高의‘東方學」, 『陽明學』 26(한국양명학회, 2010)
- _____, 「범부 김정설의 <崔濟愚論>에 보이는 동학 이해의 특징」, 『동학학보』 21(동학학회, 2011)
- _____, 「韓國における「武の精神」・「武士道」の誕生」, 『陽明學』 22(한국양명학회, 2009)
- 황종현 엮음, 『신라의 발견』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8)

A Reflec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 of Silla

Choi, Jae-mok(Yeungnam Univ.)

Kim, Tae-yeon(Yeungnam Univ.)

This is a reflec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 of silla.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Gyongju recently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for finding its identity. If so, traditionally, they usually pay attention to some concepts, Hwarang, Silla, Gyongju and so on.

Paying attention to the Hwarang, Silla, Gyongju originat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that, this tradition continues, eve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president Lee Sung-man and Park Chung-hee, now days. South Korea respect the spirit of Silla face the North Korea's policy respecting the Koguryo. We can not be ign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se political ideas.

Silla was a kingdom that lasted one thousand years. They trade with the Arab world through a network of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Such as that, Silla is progressive, and has opened mind. Many students went to study in the Tang Dynasty of China. And Silla has an open discussion institutions as Hwabak. This tradition needs to be reviewed again in nowday also.

However, overemphasizing the spirit of Silla only is not right.

Because we must respect Goguryeo, Baekje's sprit and tradition buried in our history too. We have to do not lost the balanc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Because, in the history of Korea, Silla is very important, but not in Korea only Silla history.

Key word

: Silla, the Spirit of Silla, Identity, Hwarang, Internationalization, Openness